



동문사회 네트워크 강화 정치적 위상 끌어올려야

모교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전국 어느 대학 못지않은 경쟁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흐뭇한 일이다.

20만 동문들도 이에 걸 맞는 활약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대학과 동문회가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끌고 밀어주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모교의 위상은 전북지역을 넘어 전국화 되었다. 나아가 세계를 향하고 있다. 입시 추세를 보면 전북지역 고교생은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청, 수도권 등에서 40%가 넘는 학생들이 모교에 입학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전북지역 학생들이 90% 이상을 점유한 것을 생각하면 금석지감이 들 정도다. 그만큼 대학 구성원들이 다양화·전국화 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모교는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13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톱 100에 랭크되었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전국 종합대학 중 10위 안팎을 넘나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모교는 대내외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교육부 지원 사업 6관왕에 오른 것이다.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매년 70억 원씩 5년간 3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더불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과 국립대 혁신분야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과 BK21+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대학평가 담당자들이 선정한 지방대학 가운데 최근 20년간 가장 발전한 대학으로 꼽히는 영예를 안았다.

이처럼 모교의 도약에 비해 동문들의 활약은 눈부시지 못하다. 경제, 의료, 법조, 언론,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으나 영향력이 큰 정치분야의 낙후성이 가장 심각하다. 각종 선거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18, 19대 총선을 살펴보자. 6·4 지방선거에서 모교 동창회는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도·시군의원 등 모두 53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학부 출신은 기초단체장 4명과 도의원 4명, 기초의원 15명 등 23명에 불과하다.

(2면에 계속)

이번호 주요기사

- 02 6.4 지방선거 동문 당선자
- 03 김 영 총동창회장 인터뷰
- 04 제17회 동문대상 시상식
- 05 동문 단체장 인터뷰
- 06 자랑스러운 동문
- 이용재 / 김유석 동문
- 07 동문회 소식
- 08~09 동문 동정
- 10~11 모교 소식
- 12 동문회 소식
- 13 동문 칼럼 / 김광수 · 이준구 동문
- 15 임원회비 납부자



연회비 납부안내

- 회비 : 연회비 20,000원 / 평생회비 100,000원
- 동창회 계좌_농협 : 506-17-002691
- 전북은행 : 529-13-0323304
- 국민은행 : 741801-00-001396

6·4지방선거 동문 당선자

시장·군수 당선자



전주시장
김승수(45)
정치외교학 89/96



정읍시장
김생기(67)
농화학 67/71



남원시장
이환주(53)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94/02



순창군수
황숙주(66)
경영학 66/73



완주군수
박성일(59)
법학 74/78

도의원 당선자



전주시 제2
김광수(55)
불어불문학 78/01



전주시 제3
송성환(44)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졸업 (정치학 석사)



전주시 제5
이해숙(4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주시 제8
양용모(61)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2학년 재학 (석사과정)

교육감 당선자



교육감
김승환(60)
명예회원



전주시 제9
국주영은(48)
철학 86/91



김제시 제1
정호영(47)
정밀설계학 85/91



장수군
양성빈(38)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전북 비례
정진세(36)
정치외교학과 99/05

〈1면에 이어〉 전북지역 지방선거 선출직이 251명임을 감안할 때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전주시장에 모교출신이 진출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모교출신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른 지역에서 지역대학, 즉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대를, 윤장현 광주지사는 조선대를, 김관용 경북지사는 영남대를 졸업했다. 이들 광역단체장 당선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 우리 대학 출신은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장세환 의원 1명, 2012년 19대 총선에서 김윤덕·진성준 의원 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반면 부산대는 각각 6명, 전남대는 5명과 7명, 경북대는 3명과 5명을 당선시켰다.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데는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정치분야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단연 선두다. 모든 게 정치에 의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동문들은 정치

적 위상 높이기에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동문들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선 동창회를 주축으로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가 급선무다. 노장청(老壯靑)을 아우르는 동창회의 결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젊은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다. 젊은 동문들의 역동성이야말로 동창회의 밝은 미래다. 나이가 동문의 힘이 곧 모교의 힘이고, 전북의 발전이다. 동문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모여져 정치력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초의원
당선자



전주시 가
허승복(38)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전주시 가
김윤철(57세)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졸업(정치학석사)



전주시 나
이기동(50)
농화학과 84/88



전주시 다
박병술(60)
법무대학원 지방자치(석사) 04/06



전주시 라
오평근(56)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전주시 라
이도영(35)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전주시 마
장태영(48)
사학 84/88



전주시 바
서선희(47)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석사) 06/11



전주시 사
박형배(42)
재료공학 90/95



전주시 사
이미숙(54)
정치학 박사1년 휴학



전주시 자
이명연(48)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08/10



전주시 차
이병도(48)
섬유공학과 85/90



전주시 차
김명지(51)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04/07



전주시 카
김남규(55)
축산학 77/85



전주시 타
황만길(71)
법무대학원 지방자치(석사) 05/07



전주시 파
송상준(53)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전주시 파
김진옥(42)
대학원 정치학과 2학년 휴학 (박사과정)



전주시 비례
서남이(27)
정치외교학과 06/11



군산시 가
김경구(63)
경영대학원 회계학(석사) 92/94



군산시 바
유선우(44)
공업화학 87/94



군산시 아
김우민(46)
행정학 86/93



군산시 비례
신영자(59)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석사) 04/06



익산시 가
최종오(57)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94/97



익산시 나
김중영(51)
토목공학 81/85



익산시 마
임병술(60)
기계공학 74/81



남원시 나
전평기(53)
농업개발대학원 농업생산 (석사) 05/07



김제시 나
백창민(39)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수료



김제시 마
정성주(49)
행정대학원 재학(2학년 재학중)



완주군 라
서남용(53)
수학과 졸업



진안군 나
김광수(50)
축산학 83/90



임실군 가
진남군(58)
원예학 76/80



임실군 다
김왕중(47)
축산학 85/93



고창군 라
조규철(47)
농업생명과학과 3학년 재학



“모교·지역발전 이끌 총장, 동문의지 전달 동창회 합리적 운영위해 회칙 개정 보람”



◇ 제35대 동창회 하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간 동창회를 이끌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우리 동문회로서는 '지역과 모교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립대학의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용후보자를 뽑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출방법을 놓고 올 가을 들어서부터 교내외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창회에서는 훌륭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동문의 뜻을 하나로 모아 총장 선출을 위한 학교측 집행부와 함께 지역 언론(전북일보 9월 3일자 2면) 및 유관기관 등에 폭 넓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동문의 이러한 의지는 동문회 고문단과 단과대학 회장단 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것입니다.

◇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동문의 활약이 컸지요? 총동창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난 6월4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문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입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도 단위로는 도교육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5분이 뽑혔습니다. 전주(김승수·정치외교학과 89/96)와 정읍(김생기·농화학과 67/71), 남원(이환주·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 94/02), 완주(박성일·법학과 74/78), 순창(황숙주·경영학과 66/73) 지역의 단체장이 우리 동문들로 채워졌습니다.

◇ 지역의회에서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전북대인의 진출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도 의원으로는 김광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해 아홉분이, 기초 의원은 무려 40여동문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4, 익산 2, 김제 2, 완주 1, 진안과 임실 각 2, 고창 1분 등입니다.

◇ 지역 정가에 동문들이 대거 포진된 것은 우선 축하할 일입니다만, 동문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학의 위상과 유구한 역사에 비해 우리 동문들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다 인정하듯이,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 전북대인의 책임이자 몫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전북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지역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이정표를 설정하는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물질과 정신이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같은 과업에 우리 동문들이 전북대학교라는 커다란 우산 모두 아래 힘을 합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재학생들과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난 전반기 때는 대동제 현장을 찾아 후배들을 격려하고, 농촌봉사활동 현지를 찾아 함께 구슬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장수군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후배들에게 건강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35대 전반기 동창회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이 있다면?

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제가 법률가인데다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아서 우리 동문회의 회칙을 개정할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100% 완벽한 회칙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회칙 개정으로 회장 선거를 비롯해 동창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회칙개정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동문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해 73명에게 44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후배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사업비로 그간 6개 학과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 각 단과대학 동창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도 추진하셨지요?

15개 단과대학에 영달금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각 대학의 동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군산지역 동문회 모임 등 지역모임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 우의를 다지며, 지역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기도 했습니다.

◇ 총동창회 산하의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지요...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칙개정위원회를 활발하게 개최해 회칙 개정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정기총회 때 동문대상 시상식을 갖었습니다. 40대 층의 젊은 동문들 모임체인 장기발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창회 운영에 경험이 많으신 고문님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 단과대학 회장단 모임도 자주 갖고 있지요?

동창회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갈 때 의미가 있고, 또 힘도 생깁니다. 단대 회장님들과는 평균 한 달에 한 차례 꼴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단대회장단 모임에서 그간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동창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로 봉직하셨습니다. 동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으셨는지요?

행정부 깊숙이 들어가 일을 하다보니 동문들의 힘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문들은 경향 각계각층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저력과 분위기 때문인지 올곧게 활동하면서 주변의 신망도 두텁게 받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전북대인은 거의 대개가 약삭빠르지 않아요. 듄직해요. 이러한 역량을 모아 우리 동문회는 물론, 지역에서 나아가 국가 발전으로 전북대인의 힘을 확산시킬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만 동문의 후원이 있기에 정부부지사직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후배 동문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동창회 주최 동문골프대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1월 9일 첫 친선 골프대회를 엽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35대 동창회에서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동문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자의 부담도 최소화한만큼 많은 동문님들이 함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대 동문은 돼야 우선 실력면에서 인정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명성과 역사에 걸맞게 우리 동문회가 내적으로 튼실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입니다. 아무쪼록 동창회 활동과 모교에 대한 동문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총동창회 김영회장 약력 및 주요경력|

■ 학력

- 1984. 2.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8. 2.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 2.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주요경력

-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주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위원
-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사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 현 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위원
- 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현 (주)전주페이퍼 고문변호사
- 현 농협중앙회 고문변호사
- 현 전북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제17회 동문대상 시상식

정병하·이영희·이경옥 동문 영예

전북대학교총동창회 제17회 동문대상 시상식이 지난 4월27일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정기총회 직전 개최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병하(농화학과 54입학·전북대동창회 34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영희(물리학과 76입학·성균관대 학교수·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경옥(법학과 78입학·전 안전 행정부 차관) 등 3명의 동문이 수상했다.

정병사회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에 걸쳐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온 것은 물론, 제 34대 동창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모교와 우리 동창회에 2억원 등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쾌척한 바 있다.

이영희동문은 물리학 및 나노(NANO)과학, 에너지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연구 실적을 거양한 결과 ‘자랑스런 전북인상’(1999), ‘국가석학 피선’ ‘닭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2006), ‘대통령표창’(2008) 등 국내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장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분야에 헌신하는 등 전북대학교의 위상 제고와 동문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경옥동문은 2013년 3월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제2차관에 임명되어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점이 인정됐다. 특히, 전북도 행정부지사 재임 시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동문께 드리는 글〉

“세계 명문 향한 힘찬 전진 계속돼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교 총장 서거석입니다.

1947년 10월15일 이리농과대학 설립인가를 받고 전주명륜대학과 군산대학관이 하나가 되어 호남 충청권 최초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첫발을 내디딘 우리대학이 개교 6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지역의 대표대학으로서 '자유·정의·창조'를 기치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최근엔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북대학교가 지역 거점대학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전대인의 길을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20만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을 표합니다.

제가 모교의 총장직을 수행한지도 벌써 7년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남은 임기는 채 2개월이 못 됩니다. 돌이켜보니 총장으로서 모교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엇그제 일인 듯 생생하게 스쳐지나갑니다. 취임 직후인 2007년 초 구성원과 함께 우수 대학을 벤치마킹하러 버스트어를 하던 일이며 대학통합과 로스쿨 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 그리고 교수님과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근무하실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신설하고 다들었던 시간들 모두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간 모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취임 당시 40위권에 머물렀던 대학평
가 순위는 10위권으로 진입했고, 지역대학 중 최근 20년간 가장 많이 발전한 대학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호남과 영남 주요 거점 국립대 중 유
일하게 6년 연속 교육 분야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4년 연속 학부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500대 대학 교수님들의 과학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 평가에서는 우리대학이 2011년부터 전국 종합대학 3~4위를 마크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국제화분야 국립대 1위라는 평가 역시 우리대학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연구센터도 여러 설립되었습니다. 우선 400억 원이 투입된 세계 5번째 고온플라즈마융합연구센터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완공되었으며, 국내 대학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LED융합기술지원센터와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에서는 세계 최고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모교가 거둔 여러 가지 성과들은 전국 대학들이 부러워할 만큼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특성과 사업에서 전국 1위에 올라 매년 34개 학과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실시된 '잘 가르치는 대학' 평가에서도 전국 1위에 올라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으며, 국립대 혁신평가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도 BK21 플러스 사업과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등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6대 핵심 재정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된 전국 유일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없이는 대학의 위상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게 남아 있는 마지막 소임은 모교 발전을 이끌 차기 총장님을 모셔 세계 명문대학을 향한 쉽 없는 전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동문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천년전통의 문화도시 전주,
서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
천년전통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 전주!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주는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일환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민이 살고있는 전주한옥마을은 국내 유일의 생활주거공간으로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다.
이제 전주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다양하고 독특하게
어우러져 한국 전통문화 계승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 혁신과 변화 계속됩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명예회원)

4년 전 제16대 전라북도교육감에 이어 7월 1일부터 두 번째 교육감 임기를 시작한 김승환입니다.

저는 헌법교수로서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세상, 자본권력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 끊임없이 분노하고 저항하며 저의 소신을 마음껏 발화했던 그 시절은 제 삶의 화양연화였습니다. 4년 전 도교육감이라는 아주 낯선 길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교육감의 삶은 말을 아끼고,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심각한 왜곡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엉뚱한 소설이 나와도 변명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북교육의 최종책임자라는 그 책무감은 참으로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어 절대고독과 한 방을 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교육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연줄로 인사청탁을 하거나 그럴듯한 명분과 이해타산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탐욕에 젖은 기름진 얼굴을 오래 마주 보며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순수한 감성과 합리적 이성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 뻗속까지 뭉클해집니다.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구성원들은 바로 아이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온 힘으로 밀고 가야 할 순정한 사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북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향해 힘찬 발돋움

김승수 전주시장 (정치외교학 89/96)

시민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전주시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승수입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가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시민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진리를 반드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향해 힘찬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발전은 전북대학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학은 학문의 전당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모교인 전북대학교 발전과 전주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으로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행정가가 아닌 지역사회를 바꾸는 혁신가이자 주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주는 ‘양에서 질로, 질에서 격으로’ 중심가치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고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에서 품격 있는 행복추구로 삶의 목표를 바꾸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행복한 도시 전주를 위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으면 학교교정을 거닐며 위로받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하곤 합니다. 언제나 저를 반겨주는 우리학교! 자랑스럽고 당당한 마음으로 힘찬 전주의 미래를 기약할 것입니다.



어떤 시장(市長)의 간절한 버킷리스트, 두 가지!

김생기 정읍시장 (농화학 67/71)

‘버킷 리스트(The Bucket List :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는 2008년 개봉된 영화다. 죽음을 앞두고 암 병동을 함께 쓰게 된 억만장자인 재벌과 자동차 수리공이 의기투합해 병원을 탈출하는 내용이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웰-다잉(well dying, 품위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영화 속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 영혼이 하늘에 가면 신으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당신은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 정읍시장으로서의 기쁨을 찾았는가?

- 정읍시장으로서 나는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시정을 운영해가고 있다.

지난 민선 5기에는 3년 연속 국가예산 5천억시대 달성과 서울장학숙 건립, 내장산리조트 기반조성 공사 등 많은 결실을 거뒀다. 특히 고창, 부안군과 함께 전국 최초의 광역사업인 ‘서남권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해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6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안전·첨단과학·인문관광·환경친화적 농생명’ 등 보다 더 탄탄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닦으려고 한다. 전북대학교와는 정읍을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상호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정읍시장으로서의 기쁨 찾기’와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읍시장 되기’, 두 가지 버킷리스트를 꼭 이루리라!



꿈 너머 꿈을 실현하는 위대한 전북인 되자

이환주 남원시장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94/02)

동문여러분! 저는 우리 전북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무한자원을 보유한 곳이라고 단언합니다. 세계경제의 심장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청정환경과 풍부한 유·무형 문화유산은 우리 전북의 자랑입니다.

우리 남원만 봐도 광한루원을 비롯해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 천년고찰 실상사,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현대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혼불의 무대, 정유재판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관군 만여명이 순절한 충절의 고장,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묘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1천500여 년 전 운봉고원에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가야문화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남원은 특히, 많은 산물과 넓은 지리산 기슭에는 풍부한 임산자원이 있어 일찍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최근에는 남원의 대표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과 연계해 시내권에 숙박을 하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남원예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파유 유원지에는 춘향테마파크와 연계해 시립 미술전시관, 도예마을,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등을 만들어 오감만족 거점 관광지화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관광남원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문 모두 불굴의 도전정신과 꿈 너머 꿈을 이뤄 위대한 전북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先憂後樂 與民同樂의 자세로

황숙주 순창군수 (경영학 66/73)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교가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건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동문님들과 교직원 분들께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6. 4지방선거를 통해 순창군수에 재선되었습니다.

모두가 순창군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멀리서 응원해 주신 동문님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군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땀 흘린 만큼 인정도 받았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부민강군을 군정 목표로 인구 3만명, 예산 3천억 원, 관광객 300만 명의 시대를 열어 작지만 강한 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저 혼자 힘으로 이루어 낸 성과가 아닙니다. 순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선우후락의 정신으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걱정할 일은 군민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걱정하고, 기쁜 일은 군민들이 먼저 즐기도록 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민동락의 마음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를 믿고 다시 맡겨 주신 소중한 4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순창발전과 순창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뜸도시 완주군을 만들겠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 (법학 74/78)

지금 완주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며,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잘사는 완주’,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 조성, 기업유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고 싶은 군민이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마을회사 등 농촌활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곤충·사료·화훼산업 등 미래 농업자원을 발굴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월급받는 농민이 더 늘어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특색있는 마을축제 활성화 등으로 돈버는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향상,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 생활 체육과 문화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걱정 제로(Zero), 여성과 어머니가 일하기 좋고 아이키우기 좋은 여풍당당 완주, 한 사람도 소외없는 현미경 복지, 삶의 질을 바꾸고 신나는 문화관광체육,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정주여건과 환경 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교가 재학생, 대학본부,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의 명문’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완주군 또한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로의 비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문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계 30여국가에 수출하는 헤드셋 국가대표

이용재 다산일렉트론(주) 대표이사 (무역학과 69/73)

포근하다. 영락 없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다. 무슨 부탁이라도 들어줄 것 같은 인상이자. 한마디로 이용재동문의 분위기는 따뜻하다. 이(李)동문과 담소를 나누다보면, '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격언이 생각난다. 인생을 잘 살았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인자한 인상과는 다르다. 전형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 형이다. 선이 굵다. 강단(剛斷)있는 성품 덕분에 사업 초반엔 무모하다는 주변의 우려를 훌쩍 뛰어넘고,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섰다.

이동문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5년. 나이 마흔이 넘어서 미지의 세계에 도전장을 냈다. 불혹(不惑)에 접어들면 대개는 안정을 찾는다.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쥔 나이이다. 그러나 그는 '헤드셋(Headset)'을 들고, '다산일렉트론(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었다. 모든 것을 걸고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

2010년에는 무려 1천500만달러를 수출했다. 사업 시작한지 15년만이다. 세계 30여개국에서 이동문의 헤드셋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사업에 뛰어든 때는 값비싼 외산제품이 국내에서 전체 시장의 70%나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선진국 업체 제품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던 분위기였다. 그만큼 이동문의 도전은 무모했다.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기술이 관건이었다. 그는 외산제품을 철저히 분석하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폴 센터 등에 과감하게 품질 테스트를 제안했다. 품질로 경쟁하고, 가격과 서비스면에서 유리한 제안을 통해 국산 제품의 이미지를 올려 나갔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결코 아니다. 청년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건지산 정기로 다져진 그의 저력과 독심이 사업 성공의 역정(歷程) 곳곳에서 발휘됐다.

1975년 ROTC 전역 후 중소기업에 취업, 열사(熱砂)의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후 일진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수출담당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무역에 대한 실무를 익혔다. 일진에서 창업 때까지 건축·전기·통신자재 등을 수출하면서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나갔다. 이러한 경험들이 창업을 하는데 큰 주춧돌이 되었다.

고교 때 이과였던 이동문은 당시 인문대학에 재직중이었던 부친 이강오교수(철학과)의 강력한 권고로 상과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그가 재학중일 때 아버님과 함께 큰 형(이형재·물리학과 전임강사), 작은 형(이명재·기계공학과 조교), 여동생(이영희·국문과 학생) 등 다섯명이나 함께 있어 '캠퍼스 가족'이라고도 불리었다. 이후에도 아버님의 강력한 압력(?)으로 여섯 형제 모두 전북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모교는 더욱 이동문에게 가족만큼이나 사랑스럽고, 또 고마운 존재다.

이동문은 현재 재경동문회장과 모교발전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2012년 말 전북대후원인의 밤 행사 때는 후배들의 면학을 위해 1억원의 발전기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쾌척하기도 했다.

"지방대학 출신으로 중앙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는 우리의 여러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 털어놓은 그는 "그러나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철저히 전문가가 된다면 출신대학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 힘주어 말했다.



농사 짓는 중견시인, 문득 동시로...

김유석 시인(자연대 물리학과 79/07)



"부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조리를 낳는다."

근래 상재한 시집 <놀이의 방식>에 적혀있는 그의 자서自序이다. 불화와 밀회를 되풀이하면서 저마다의 삶에 수렴해가는 시시포스적 인간정신을 자연의 생태들에 비유해 이야기하거나, 기존하는 사물의 상투성을 치밀하게 추적해가며 그것들의 또 다른 본질을 묻는 시편들 속에서 그를 먼저 만났다.

79학번 물리학과생. 시인의 이력을 달기에 전공이 조금은 난감해 보이는 그는 문력 25년의 이름 없는(?) 중견이다. 전북일보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거꾸 당선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문단에 나온 것에 비해 그간 겨우 두 권의 시집만을 세상에 내놓은 것을 볼 때 필경 그는 과작하거나 게으른 사람이다. 다른 이들이 열심히 업을 쌓는 동안 낚시나 던지며 강물과 저수지를 두루 섭렵하였다 하니 그 곡절도 그렇거니와 작년에 문득, 동시를 들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다시 얼굴을 내민 그의 행적이 여간 수상하지가 않다.

그는 고향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간다. 배움지 않을 만큼만 물려받은 땅이 있어 다행이라 웃음 짓는 그의 그을린 모습은 시인이자보다 촌부가 마땅했다. 스스로도 그리 여겨주기를 더 반긴다는 그는 맨발에 닿는 흙의 감촉만큼 부드러운 것은 없다. 흙에 뿌리박고 사는 것들만큼 순하며 또한 모진 것들도 흔치 않을 것이다. 발씨에 토실한 풀씨들을 묻히고 두런두런 들길을 걷는다. 들판에 보이는 그 한편, 저만치 뒤편을 자잔히 어루는 너울 같은 쓸쓸함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절판된 지 오래인 첫 시집에서 그는 상처를 이야기 하였다.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라 좀 더 원초적인 그것을 찾으려 했던 듯싶다. 이를테면, 혼자만의 연모로 끝난 첫사랑의 아련한 아픔이라든지 탕자나무를 기어올라 가시 사이에 열매를 매다는 호박넝쿨의 모습을 통해 자연한 상처를 노래했던 그, 진정한 상처란 자해와 같다 역설하던 그에게 다시 한 번 상처에 대해 물었다.

"아물 수 있는 건 상처도 아니다" 이르던 그는 이제 그것보다 그것의 치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힐링'이 대세인 요즘, 가슴 저린 기억들에 대한 한 가지 치유법을 망설이듯 제시한다. 시간을 거슬러 그것을 돌이키는 일인데, 공상과학이나 심령을 빌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문학으로 가능하다 말한다. 장르 가운데 동화나 동시 같은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상처가 놓이던 과거로 돌아가 그것을 따뜻이 감싸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꿈 이야기 같으면서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의 가슴을 따르면서 다 늦게 그가 동시를 쓰는 까닭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보면 농사를 생업으로 사는 일도 묶고 서둘다 싶은 생각 하나하나도 천상 그는 시인이다. 딱히 그것 밖에는 따로 달 사족이 없다. 전공을 버리고 시를 쓰게 된 연유라든지, 학창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다 겪은 필화사건이랄지 물장사를 했던 한때의 외도랄지 뭐,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법한 시시결령 말고는 이렇다 할 세월의 단서를 찾기 어려운 그는 결국 시인일 수밖에 없다. 한 번 뿐인 청춘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늙어버렸다는 자조 섞인 중얼거림이 그렇게 흘러버린 세대를 넘어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들에까지 들려온다.

"넌 왜 거꾸로 매달려 있니?"

어지럽게 거꾸로 보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단다."

- <거미>

온 가족을 위해 쌀은 역시-

미스코리아 전북쌀

전북쌀이 다시 한 번 '고품질브랜드쌀 평가'를 휩쓸었습니다

전북쌀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수산물부에서 주관한 '2013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북의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한알 한알 정성껏 재배되어 맛에서, 품질에서 비교될 수 없는 친환경 전북쌀로 온 가족의 입맛과 건강까지 챙기세요.



금상
탐마루 골드라이스
(익산명천RFC)



은상
철새 도래지쌀
(군산제회RFC)



동상
상상예찬 골드
(김제공덕농협)



동상
무농약쌀 지평선
(김제새만금농산)



동상
못잊어 신동진
(군산옥구농협)



지역을 빛낸 쌀
단풍미인쌀
(정읍통합RFC)

인터넷으로 JB프라자

www.jbplaza.com

전라북도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열려

‘제6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이 7월8일 오후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전북대학교동창회와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교육감과 시장, 군수 및 도·시의원 당선자와 축하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동창회 김영희장은 환영사를 통해 “20

만 우리 동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있지만, 유구한 모교의 역사와 크게 높아진 위상에 비하면 아직 제 자리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그간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단체장, 그리고 도·시의원 등 도내에서 무려 53명의 지도자가 배출돼 실로 가슴 뿌듯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당선자 대표로 나선 김승한 교육감은 “이번 축하연을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주시 김승수시장은 “관료조직의 불필요한 의견을 과감히 개혁해 시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 김생기시장은 “시민이참여하고 주도하는 선진형 시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완주 박성일군수는 “주민의 복리를 끌어 올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황숙주군수는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창회 고문과 동문 경제단체장·언론인대표·동문교수·총학생회대표 등이 모여 축하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제35대 동창회 회칙개정위원회 개최



(上)회칙개정위원회는 2014년 4월 8일 동창회사무국에서 3차 회의를 갖는 등 정기총회 때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규정 개정 작업을 했다.

(左)2014년 1월15일 회칙개정위원회 첫 모임에서 김영희장(사진 오른쪽)이 백영기위원장(사진 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동창회 회칙이 지난 4월 27일 정기총회 때 개정 발효됐다.

이번 개정은 1955년 회칙이 첫 제정 발효된 이후 19차례 개정된 것이다.

동창회는 올해 1월15일 회칙개정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수차례의 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토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 정기총회에 상정돼 개정된 것.

이번 개정과정에서는 특히 동창회 상임이사인 박재관동문(공대 85·인포피아 대표)과 강관천동문(법대 94·변호사)위원의 노고가 컸다.

위원으로 활동해준 동문은 표와 같다.

제35대 동창회 회칙개정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대학	학과/입학
고문	백영기	수익대	수익학과 51
	고양곤	상대	경제학과 51
부회장	이용규	상대	회계학과 81
	김세천	농대	임학과 74
단대 동문회장	임기영	자연대	물리학과 72
	이문용	사범대	체육교육과 73
	김상휘	인문대	사학과 84
상임이사	박재관	공대	화학공학 85
법률가	김성진	법대	89
	강판천	법대	94
사무총장	배정생	법대	법학과 86



FreeMate
www.headsetkorea.co.kr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우수한 품질과 확실한 서비스로 공공기관과 기업 컨택센터에서 인정받은 헤드셋 !!!
전세계 헤드셋 시장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 대규모 컨택센터에서 소규모 사무실 및 재택근무자까지 만족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누려라~!
자유쾌감!

◆ 무선 헤드셋 ◆



DW-775
(1.7GHz DECT)
콜센터 Supervisor
& Office 전용



DW-770
(1.7GHz DECT)
콜센터 Supervisor
& Office 전용



DA-579BT
(2.4GHz Bluetooth)
Office 및 Mobile 겸용

◆ 유선 헤드셋 ◆



DA-475U
USB 디지털 증폭기



DAX-275IP
헤드셋 증폭기



DH-031TP
콜센터/Office



DH-027TFN
콜센터/Office



SOLAR
콜센터/Office



DH-017USB
UC 전용 헤드셋

FreeMate
ISO 14001 : 2004
KSQ / ISO 9001 : 2008
벤처기업 20090107538
신제품인증 NEP-MOCIE-2006-02

디신일렉트론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플랜트 1동 307호 Tel. 031-500-4641 | Fax. 031-500-4640

[코리아신탁 대표 선임]



최익중 동문(1977년 경영학과 졸)이 지난 4월 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코리아신탁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정읍 출신인 최 대표는 모교 경영학과와 미국 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1977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싱가포르 지점장과 기업구조조정실장, 공공투자본부장, 투자금융본부장(부행장) 등을 거쳤다.

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KDB생명 대표를 역임했다.

[군장에너지 사장 취임]



박준영 동문(1980년 화학공학과 졸)이 지난 6월 18일 군장에너지(주) 사장으로 승진 취임했다.

박준영 사장은 모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양제철화학공업주식회사 익산공장, OCI 군산공장 공장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2년 3월부터 군장에너지 신규사업 담당 부사장을 맡아왔다.

박 사장은 지난 2004년 에너지절약 유공 산업포장 대통령상, 2009년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상했다.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김효순 동문(1981년 영어교육학과 졸)이 지난 9월 1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취임했다.

김 교육장은 취임 일성으로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강조한 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하는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출신으로, 모교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북도교육청 장학사 및 장학관, 임실고등학교 교장,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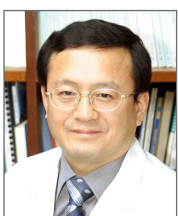


이현숙 동문(1979년 영어교육학과 졸)이 지난 3월 3일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 취임했다.

이 원장은 모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9년 교직에 입문, 경기도 외국어연수원 교수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교원역량혁신과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훌륭한 강사수급, 연수 패러다임의 전환, 공공정서에 부합한 태도 등을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차기 회장 선임]



서만욱 동문(1982년 의학과 졸)이 지난 4월 대한신경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 동문은 지난 4월 4일 열린 '2014년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신경과학회 제33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서 교수는 "앞으로 회원들 간 학술적 토론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유도하고 진료영역을 넓혀 신경과학 분야가 의학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 사내이사 선임]



채완병 동문(1982년 기계공학과 졸)이 지난 3월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삼양사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삼양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채 동문은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삼양사에 입사했다.

국내외플랜트 건설업무, SCM실 설비 자재팀장, 경영지원실 총무팀장, 경영기획실 PI팀장, 용기BU장을 거쳐 2013년부터 화학2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번에 삼양사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포스코P&S 대표이사 선임]



신영권 동문(1983년 행정학과 졸)이 지난 3월 17일 포스코P&S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신 사장은 모교 행정학과와 KAIST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포스코 상무, 포스코 냉연판매실장,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포스코P&S는 포스코의 철강판매 전문 계열사이며, 신 사장은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방암학회 차기 회장 선출]



정성후 동문(1983년 의학과 졸)이 지난 4월 한국유방암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현재 전북대학교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정 동문은 2015년 4월부터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유방암학회는 1996년 발족한 유방암연구회를 모체로 1999년 6월 정식 출범했다.

전국 1200여명의 유방암 전문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방암 예방과 교육 그리고 치료에 대한 연구 활동과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KBS 보도본부장 임명]



강선규 동문(1985년 사회학과 졸)이 지난 8월 2일 KBS(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장에 임명됐다.

강 본부장은 전주교과와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5년 KBS에 입사했다.

이후 LA지국 특파원, 국제팀 팀장, 보도본부 정치외교팀장, 시청자센터 홍보팀장,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심의실장 등을 거쳤다. KBS 내부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강 동문은 특히 정론직필을 실천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1월 전북대 언론인회가 수여하는 동문 언론인상을 받았다.

[제10대 전북도의회 의장에]



김광수 동문(불어불문학과 졸)이 지난 7월 1일 제10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임됐다.

모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김 의장은 제6대 전주시의원에 당선돼 지방의회에 진출했으며, 제8대 전주시의원을 거쳐 전북도의회(제9대)에 입성한 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전주시 제2선거구), 재선에 성공했다.

제9대 전북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의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전북대 초빙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표방했다.

[생보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선임]



김상진 동문(1984년 경제학과 졸)이 지난 6월 1일 생보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생보부동산신탁은 1998년 12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50대 50의 지분으로 설립한 부동산 신탁 전문회사다. 김 사장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교보생명에 입사해 부동산사업팀장, 기업금융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사범대학장 취임]



이정애 동문(1984년 국어교육과 졸)이 지난 8월 28일 모교 사범대학장에 임명됐다. 모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이 동문은 지난 2001년부터 교수(국어교육과)로 재직하면서 국어교육과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대학본부 교무부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동문은 교육대학원장도 함께 맡았다.

[고효율 수소차단막 개발 주목]



이중희 동문(1985년 기계공학과 졸)의 연구팀이 최근 고효율의 수소 차단막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7월 BIN융합공학과 이중희 교수 연구팀이 기존 수소연료전지의 수소차단막보다 차단 효과가 100배 큰 수소차단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은 3년 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신개념 융합형 수소차단막 개발에 힘써왔다.

이 교수는 "수소가스 차단막 기술은 수소의 저장 효율을 증대하고 가스 누출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라며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도 많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중희동문은 10월13일 열린 올해 모교 개교기념 행사에서 <논문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대 산악회 50주년 발자취 펴내]



전경태 동문(1985년 축산학과 졸)이 지난 5월 '전북대 산악회 50주년 발자취'를 책자로 펴냈다. 전 동문은 모교 산악회에서 활동했던 졸업생들의 모임인 전북대 산악회 회장을 최근까지 지냈다. 이번에 발간된 '전북대 산악회 50년 발자취'는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산행일지와 관련 사진, 글 등을 담고 있다. 또 전남대 산악회와의 교류내용, 해외원정 산행, 오지탐험 등의 내용도 실렸다.

[모교 공과대학장 취임]



정진균 동문(1985년 전자공학과 졸)이 지난 8월 28일 모교 공과대학장에 임명됐다. 모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정 동문은 지난 1995년부터 교수(전자공학부)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 반도체설계교육지역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장 취임]



김형태 동문(1986년 영어영문학과 졸)이 지난 9월 1일 제26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취임했다. 김제 출신인 김 동문은 지난 1988년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정책기획팀, 국제해운물류팀장 등을 거쳐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취임식에서 "해운물류와 해양정책 분야의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남해 물류 중심항인 목포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릴리학술상



정영철 동문(1986년 의학과 졸)이 지난 4월 10일, 201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릴리학술상을 수상했다. 릴리학술상은 신경정신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 동문은 학술연구에 매진,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신경정신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기업연구원장 취임



김세종 동문(1989년 경제학과 졸)이 지난 8월 제5대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중소기업연구원장에 관료 출신이 아닌 내부 출신이 원장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임기는 오는 2017년 8월까지다.

김 원장은 앞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 실천할 연구원 운영 목표로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강화와 외연 확대 △연구품질과 정책 활용도 제고 △재정안정 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충남 보령경찰서장 취임



이동주 동문(1986년 법학과 졸)이 지난 7월 7일 충남 보령경찰서장에 취임했다. 이 서장은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행정을 펼쳐 신뢰 받는 보령경찰서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간부 37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 서장은 대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금산경찰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협중앙회 강원지부장에



김남철 동문(1988년 농업경제학과 졸)이 지난 4월 1일 신협중앙회 강원지부장에 취임했다. 모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지부장은 지난 1988년 입사해 자금운용팀장, 자금운용부장, 신용사업부장, 자금운용부장 등 자금 관련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충남 아산소방서장 취임



이종하 동문(1988년 금속공학과 졸)이 지난 7월 8일 제16대 충남 아산소방서장에 취임했다. 이 서장은 전주교와 모교 금속공학과를 졸업, 지난 1987년 4월 소방간부 후보생 5기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소방안전본부 종합안전센터장, 서천·논산·부여소방서장을 역임했다.

서해대학교 총장 취임



황진택 동문(2003년 대학원 법학과 졸)이 서해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8월 28일 취임식을 가진 황 동문은 모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전주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우석대 법과대학 겸임교수와 군산기독교원 관선 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황 동문은 교육을 통한 진정한 삶의 가치 보급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으로 '호남 최고의 전문 직업교육 거점대학' 비전 실현을 강조했다.

전주대 부총장 임명



최원철 동문(대학원 박사)이 지난 8월 8일 전주대학교 부총장에 임명됐다. 최 부총장은 전주교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동문은 전주대 교무처장과 특수대학원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 전라북도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농협 전북지역본부 운영자문위원, 전북지방노동위 조정담당 공익위원,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고명환 동문(1993년 의학과 졸)이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받았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고 동문은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7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 부시장 취임



한웅재 동문(대학원 졸)이 지난 7월 18일 익산 부시장에 부임했다.

모교 대학원을 졸업한 한 부시장은 1979년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환경정책과장, 일자리정책관, 환경보전과장, 대외소통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 2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주 부군수 취임



윤재구 동문(경영대학원 졸)이 지난 7월 18일 무주 부군수에 취임했다.

장수 출신인 윤 부군수는 모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8년도에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전북도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대외소통국, 행정지원관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부군수 취임 전에는 전북도 삶의 질 정책과장을 지냈다.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꼼꼼한 일처리 능력과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JB 금융지주 상무 임명



서한국 동문(경영대학원 졸)이 지난 7월 1일 JB금융지주 상무로 승진 임명됐다. 서 상무는 정읍 출신으로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거쳐 모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8년 JB전북은행에 입행해 종합기획부 부부장, 전략기획부장, 영업지원부장 등을 역임했다.

기초의학 신진학술상 수상



김민걸 동문(의학과 졸)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2014년도 대한의사협회 기초의학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현재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홍삼 제품 섭취 시 인체 혈장 내 컴파운드 케이(compound K: 인삼사포닌의 활성물질) 성분의 약동학적 특성 평가'라는 논문으로 연구업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ocalfood is Life

생산자의 얼굴을 보고 산다면 믿을 수 있겠지요?

농가에서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공간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상관 묘원마을 박영섭농가의 로컬푸드 출하과정

1. 출하할 농산물 소포장
2. 출하 신고 직매장 이동
3. 출하에 가격바코드 부착
4. 직매장 매대에 물품 진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 드셔보실래요?

우리 농촌에서 즐겨먹던 농촌 전통 밥상을 발굴, 복원하여 메뉴화하고, 여기에 사찰음식을 결합한 피가되고, 살이되는 건강힐링밥상을 제공합니다.

- 아 하 라 : 063-714-3833
- 비 비 정 : 063-297-8609
- 새참수레 : 063-261-4276

정체불명의 먹거리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정체불명의 가공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지역산 원료로 가공센터에서 농민이 직접 가공한다면 믿을 수 있겠지요? 재료가 신선해서 더 맛있습니다.

生活

다함께 열어가자 으뜸도시 완주

생산자(농촌) + 소비자(도시) = 도농상생

용진직매장 063) 243-7062 **효자동 직매장 1600-0125**
하가지구직매장 063) 902-5760 **모악산 직매장**

국내 유일 정부 재정지원 6관왕

모교가 정부가 지원하는 굵직한 사업들을 싹쓸이 하며 '6관왕'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모교가 추진하는 학생 교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모교는 올해 가장 굵직한 정부지원사업인 대학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5년간 35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연이어 발표된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위에 올라 이 역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24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에도 선정 연간 43억 원씩, 3년간 130억 원 가량을 받게 됐다. 또한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최우수대학 선정을 비롯해 최근 발표된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에도 1위에 오르며 37개 국립대 중 가장 많은 15억2,800만 원의 지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BK21플러스사업에 20개 사업팀(단)이 선정돼 520억여 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로써 모교는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굵직한 주요 사업을 모두 휩쓴 국내 유일의 대학이 됐다. 모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과 기초교육 강화를 목표로 내건 차별화된 학사운영 및 환경, 특성화학과 등을 기반으로 한 대학 전체의 특성화 전략 및 성과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학생 교육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정부의 확실한 인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거석 총장은 “최근 거둔 성과들은 우리대학이 서울 지역의 우수 대학보다도 내실 있는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라며 “이 모두는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대학평가 10계단 상승 ‘아시아 87위’

모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아시아 순위가 무려 10계단이나 상승하며 87위에 올랐다.

국내 순위 역시 1계단 상승한 16위에 랭크돼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대학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모교는 전북 지역보다 경제 규모가 2~3배에 이르는 광주·전남, 대전·충청 지역의 거점대학들을 압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의 위상을 갖췄음을 재확인시켰다.

아시아 17개국 491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연구능력 60%(교원 당 논문수 15%, 논문당 인용수 15%, 학계평가 30%), 교육수준 20%(교수 1인당 학생 수), 졸업생 평판도 10%, 국제화 10% 등 4개 항목의 경쟁력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긴 것. 모교는 이번 평가에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국제화와 교육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환 학생을 해외에 파견하는 대학답게 이 분야에서 아시아 33위에 올랐고, 학생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교원당 학생수에서도 89위에 랭크됐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서 ‘최우수’

모교가 정유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14일 발표한 ‘2013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산업계 관점에서 바라본 각 대학들의 강점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이 평가에서 모교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산업계 요구와 교육과정 일치도 및 교육·기술개발 성과 등의 부문에서 전국 최고 대학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S-OIL, OCI 등 390여 기업의 부서장과 직원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대를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한 기업친화적 인력 및 지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산학협력위원회 및 산학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무형 교육과정을 개편했고, 통합 경력관리 시스템인 ‘큰사람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전문지식뿐 아니라 덕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모교 김민중 교수 저서, 2014 우수학술 도서 선정



김민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펴낸 저서 『에이즈의 법률학』(신론사)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년 학술부문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모교 저술장려 지원을 받아 펴낸 이 책은 쉽게 공론화하기 어려운 문제인 에이즈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다룬 것.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검토돼야 할 각 법적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법학자적 시각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거절하는 등의 불합리한 대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에이즈 감염 여성이 임신·출산 권리가 있는지 등 에이즈 감염자를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경계가 교묘하게 엉켜있는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된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기본적인 지식, 국내·외 현황 등도 다루고 있다.

최낙원 교수, 황석영『객지』스페인어 번역·출간

우리 문학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려온 최낙원 교수(스페인·중남미학과)가 한국 문단의 거목인 황석영 작품을 번역·출간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 교수는 최근 황석영 작가의 중·단편집을 모아 스페인어로 번역한 작품인 『객지』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07년 한국 고전소설의 백미인 ‘춘향전’을 세계 최초 스페인어로 번역·출간했고, 2012년에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사용하는 카탈란어 한국어 사전을 직접 편찬해 카탈루냐 주의회에 기증하는 등 스페인 문화권 국가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번에 번역된 작품도 최 교수가 수년째 진행해 온 노력의 일환으로 4억 명의 스페인어권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작업의 연장선이다.

최 교수는 “최근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상과 문화를 담은 작품이 그들에게 한국의 면면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문화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도록 번역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교 역사·발전상 ‘한자리에’



이 전시됐다. 또한 각종 통계로 드러나는 모교의 교육·연구·국제 경쟁력과 세계 수준의 연구 시설 및 변화하고 있는 캠퍼스의 모습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전시실에는 모교의 기반이 된 전신 기관부터 시작하여 글로벌 명문 대학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교직원 관련 유물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회, 축제 관련 유물을 통해 열정적인 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교의 역사와 대외 위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홍보·역사전시실이 7월 7일 박물관에 문을 열었다. 새롭게 단장된 전시실은 기존에 전시됐던 학교의 역사와 더불어 그간 대학의 발전과정과 실질적 성과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홍보전시실을 신설했다. 홍보전시실에는 대학 현황에서부터 각종 평가에서 세계적 위상을 드높인 대학의 현재 성과와 최근 대학 특성화 사업 최대 지원금 수주 등의 우수한 지표 및 통계 등이 전시됐다.

340억 투입 최첨단 중앙도서관 개관

국내 최대 규모, 최첨단 시설을 갖춘 모교 중앙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모교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신축도서관 중앙홀에서 서거석 총장과 정항근 부총장 등 본부 보직자들과 김영 총동창회장, 김기혁 국공립대도서관협의회장, 지승룡 회장 등 발전기금 기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총 3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모교 중앙도서관은 열람실 2천100여 좌석, 도서 자료실 2개층,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26개, 영화 관람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됐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하나로 출입 관리부터 도서 대출, 스튜디오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넓은 학습 공간과 함께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실, 영화관, 스튜디오 등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시설들을 통해 기존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전북대 캠퍼스에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잘 갖춰진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 수가 이전보다 7배가량 늘어나 명실공히 모교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중앙도서관 현판 제막식과 함께 도서관 중앙홀에 발전기금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명예의 전당'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서거석 총장은 "오늘 문을 연 최첨단 도서관은 법제계적으로 자유롭게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스마



트 도서관이 될 것"이라 "장서를 소장하고 열람하는 전통적 기능과 더불어 전자도서관 시대에 걸맞은 첨단 서비스를 제공해 우

리대학을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알라모스연구소, 모교에 등지



중앙도서관 뒷편에서 가졌다.

지상 3층 1,350㎡규모의 독립연구소로 들어선 이 연구소는 항공기 및 폭력 복합재 구조조건전성 관리 및 안전도 평가, 우주발사체 충격과 레이저 시뮬레이션 등 우주항공 분야 최첨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168건의 세계 수준의 논문과 36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 시제품 제작 4건, 기술이전 8건 등 최고의 연구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3년 연속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원전과 재료,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등에서 세계 으뜸으로 손꼽히는 미국 로스알라모스연구소가 모교에 등지를 틀었다.

모교는 지난 2011년 정부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선정돼 연구를 시작한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소장 이정철)'의 건물 준공식을 8월 26일 오후 4시 옛

'불 타지 않는 목재' 국가신기술 인증



모교 박희준 교수(생활대 주거환경학과)가 2011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불에 타지 않는 목재 제조기술이 올해 국가 신기술 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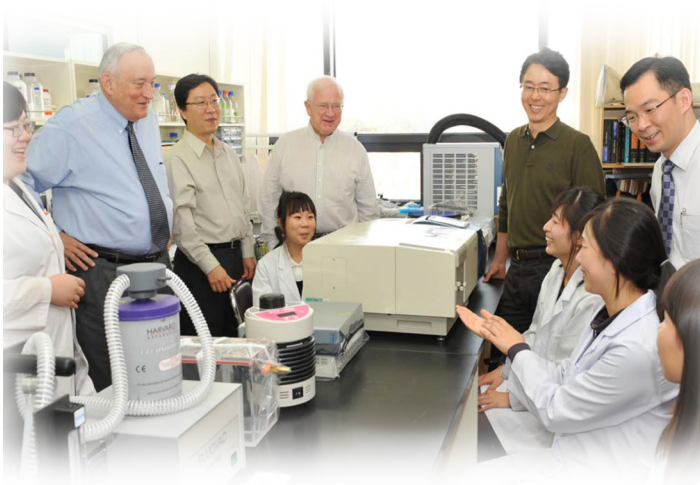
국가 신기술 인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술의

우수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8월 20일 오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 하고 있는 ㈜행복우드테크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함께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 신기술은 박 교수에 의해 개발된 친환경 난연수지를 목재 내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불에 타지 않는 목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목재는 불에 타지 않으면서도 목재 표면에 도막이 형성되지 않아 목재 천연의 향과 온·습도 조절기능, 천연 재색과 무늬 등 목재 본래의 기능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화재에 취약했던 목재 건축 분야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BIN융합공학과



2015학년도(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일반전형) 모집 안내

- 원 서 접 수 : 2014. 11. 05(수) 9:00~11.07(금) 18:00 까지
- 지원서류제출 : 2014. 11. 21(금) 9:00 부터
- 구 술 고 사 : 2014. 11. 21(금) 추후공지
- 합격자 발표 : 2014. 12. 19(금) 14:00 예정
- 접 수 방 법 : 인터넷접수(전북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BK21플러스+

우리가 인재를 키웁니다 세계가 당신을 원합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전북대학교 대학원 BIN융합공학과.
최고의 교수진, BK21 Plus Global Team, 미국 켄트대학과 공동학위제 실시



이중희 교수
(학과장)
나노복합재료



김학용 교수
유기나노섬유



강길선 교수
생체재료공학



이승희 교수
전자정보소자



이동원 교수
생체의용공학



김병석 교수
섬유공학



임동권 교수
나노바이오공학



Robert M. Nerem
미국, Georgia Tech



Paul M. Vanhoutte
홍콩, 홍콩국립대



Peter M. Kang
미국, 하버드 의대



Alan K.T. Lau
홍콩, 홍콩과기대



Debes Bhattachayya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Suresh Advani
미국, 델라웨어대



Rui Reis
포르투갈, 민호대

전북대를 줄이면 '전대' 입니다

모교 명칭 '전대'로 바로 불러야

모교는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대학평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밖에서 대학을 보는 눈이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국내 10대 대학, 세계 100대 대학' 진입도 멀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옥에 티가 있다.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 그것이다. 꽤 오래 전부터 일부에서 전북대를 줄여서 '북대'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전 세계 어느 대학, 지구상의 어떤 고유명사도 이름을 줄여서 부를 때 뒷 글자를 따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가를. 전부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것이 게 기본이고 상식이다. 서울대를 '울대'라 부르는 사람은 없다.

'북대'는 그 옛날 우리 대학을 '후졌'다고 불렀던 말이다. 그 이전엔 '덕진고등학교'라 부르던 때도 있었다. 이것은 모교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줄임말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할지 몰라도 밑바닥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흔히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남대를 '전대'라 부른다. 따라서 전북대를 '전대'라 부르면 혼동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다.

경상도에 가면 '경대'가 여럿 있다. 경북대, 경상대, 경남대, 경성대, 이들 모두 '경대'라 불린다. 충청도도 마찬가지다. 충남대, 충북대, 충청대, 모두 '충대'라 불린다. 물론 출신에 따라 자기 대학이 원조라고 우기는 경우는 없지 않을 것이다.

전북대는 전남대보다 먼저 개교했다. 또 이제 호남권의 최고 대학으로 손색이 없다. 우리 대학은 30여 년 전부터 전북대를 '전대'라 부르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1980년대 학생회에서는 우리대학을 '애국 전대'로 불렀고, 1990년대는 대학 언론사와 학생회가 한뜻이 되어 학교 이름 바로 부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 캠페인이 계속되었고, 정문 앞 전광판에는 전광판을 세운 2008년부터 '전대'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줄임말의 경우 의도가 불순하거나, 어감이 부정적이고 당사자가 싫어하면 부르지 않는 게 예의다.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새삼 그러다"고 하지 말라. 교명은 사람의 이름과 같이 소중하다. 무심코 '북대'라 부르는 동문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삼갔으면 싶다. 전북대를 줄이면 '전대'다.

35대 동창회 단과대학 회장단 조찬모임 개최



단과대학회장단 조찬간담회 장면. 김영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35대총동창회는 평균 매일 한 차례씩 단과대학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3년 5월 28일 첫 단과대학 회장단 조찬간담회 이후 10월 7일까지 모두 11차례의 간담회를 이어 나가고 있다. 단과대학회장단 간담회는 동문 모임 활성화와 더불어 동문들의 참여 속에 동창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간 회의에서는 동창회 업무보고와 사업 추진 협의에 이어 최근에는 훌륭한 차기 총장을 초빙하기 위한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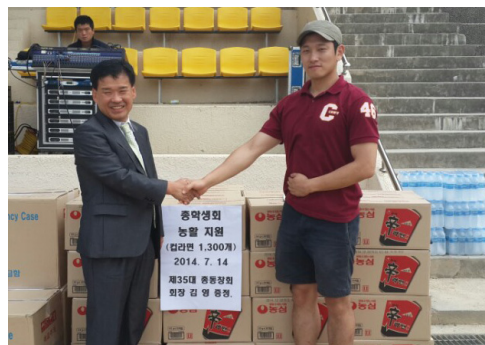
공대 기계공학과 1978학번 입학동기회 첫 모임



기계공학과 78학번 입학 동기들이 10월 9일 모교 공대 8호관(산학협력관)에서 첫 동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37년 만에 처음 동기회를 갖고 모처럼 모교에서 옛 추억을 떠올렸다. 전체 입학생 38명 중 이날 모임에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및 간단한 체육대회를 겸한 동문 모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가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 동기중에는 유난히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현재 국립대 교수가 5명이나 되고, 국립 연구원, 대기업 임원 등 그 활약상이 매우 돋보인다. 전원 연락이 돼 1년 후 78학번 기계공학과 동기모임은 더욱 알차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기 회장으로는 현재 모교 BIN 융합공학과 이종희 교수가 선출되었고, 총무에는 전남대학교 문봉호 교수, 로이드 김종곤 사장이 선출되었다.



총학생회 농활지원

지난 여름 모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총학생회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에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을 위해 라면과 생수를 지원했다. 사진은 2014년 7월 14일 부식품을 전달하며 장은학학생회장(사진 오른쪽)과 악수하는 모습.



201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8월4일 모교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장학증서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학생들. 맨 가운데가 김영회장.



정읍시

명품농산물의 또 다른 이름

단풍미인

깨끗한 물, 넉넉한 햇살,
내장산 깊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오염되지 않은 동진강의 맑고 풍부한 물!

땅을 지키며 근면함으로
우리 농업을 굳건하게 지켜온 정읍 사람들

대한민국 1%를 지향하는 준비된 브랜드
'단풍미인'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빚어낸
정읍의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

품종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더해져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단풍미인'

쌀과 한우, 수박, 약주, 토마토, 복분자까지
'단풍미인'은 정읍시가 모든 역량을 투자해서
생산한 최고급 농산물입니다.



쌀



한우



수박



약주



토마토



복분자

동문칼럼

가을날, 책 한 권을 펼쳐 들자

• 김 광 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불어불문학 78/01)

‘세종대왕, 이순신, 김대중, 노무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손정의...’ 이들의 공통점은 ‘다독이’다. 세종대왕은 한 권의 책을 백번 읽고 백번 옮겨 썼다는 백독백습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도 문관이었으나 과거시험에 여러 번 낙방해 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병법을 습득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책을 읽었으며 퇴임 후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또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손정의 등은 세계적인 부호이며 독창적 기술로 성공을 거둔 경영자이다. 29세 때 억만장자가 된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잡히는 데로 읽을 만큼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자랑한다. 그는 매일 밤 1시간 이상 책을 읽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도 주가하락과 애플사에서 퇴출 등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한다.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려 4천여 권의 책을 읽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1년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성인 연간 독서율은 1994년 86.8%에서 2013년 68.8%로 17.9%p가 감소했다. 직장 내 도서관 설치 비율은 5.9% 수준이었으며, 국민의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26분, 주말 30분에 불과했다. 반대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은 2.3시간, 스마트폰은 1.6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가계별 월평균 도서 구입비는 1만9,026원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28%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3년도 국민총생산(GDP) 순위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경제력 순위 15위에 빛나는 경제 우등생이다. 시외는 물론 작은 시골마을에서도 와이파이기가 터지고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IT 강국이지만 독서량만큼은 열등생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1년 365일 중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성인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사실이다. 100% 중에 30%라는 엄청난 비율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열광하는 대학생들 역시 점차 활자 책을 멀리 하는 추세라고 한다.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대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도서 대출 목록 1위가 무협물과 판타지 소설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성공한 경영자들의 공통점은 책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본인이 책을 즐겨 읽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에게도 책을 추천하고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아주그룹의 김재우 부회장은 호학하는 대표적인 경영자로 손꼽힌다. 그는 29세 삼성물산 초대 런던 지점장, 32세 사우디아라비아 1억불 수출 계약, 37세 삼성그룹 최연소 임원, 벽산그룹 부회장으로서 IMF외환위기 이후 1년 만에 워크아웃 탈출 등 경영계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다. 그 역시 책 읽기를 강력 추천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책을 읽지 않는 집단과 국가는 철저히 소멸됐다. 독서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미래가 없지만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성인들이 책을 안 읽으면 현재가 없음을 기억하자.

9월 천고마비의 계절 전북대학교 동문들도 책 한 권을 펼쳐들면 어떨까.



동문칼럼

술대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가는 길

• 이 춘 구 KBS 심의위원 (1980년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모교는 서거석 총장 취임 이래 <세계 100대 대학>을 목표로 내세우고,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농생명과학대학은 세계 90위권으로 세계 100대 대학에 들고 있다. 학과별로는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학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2014년 10월 6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대학평가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국내 22위에 머물고 있다. 지방 국립대 가운데에서는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평판도를 제외하면 전북대학교는 17위로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평가한다.

평판도는 모교의 노력만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전북대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과 평가로도 평판도가 형성된다. 전라북도는 전국 경제력 점유율이 2~3%대에 머물고 있다. 한때 전국 7대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양반고을로 위세를 누리던 전주시는 10대 도시에서조차 밀려난 지 오래이다. 전라북도는 정치력 면에서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민당의 오래된 전통과 이철승, 장경순, 김원기, 정동영, 정세균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조차 광주·전라남도에서 밀려 갈수록 세력이 위축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북 출신 장관과 차관, 청와대 비서관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판도를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라북도는 고질적인 장기파업과 노사갈등, 중앙정부와 대립적인 교육행정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이 지역 출신 인재들 등용하는 데 소극적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교육예산도 막대하다. 개별사건의 상황을 분석하면 서로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분석해도 소위 민주정권 하에서조차 구조적으로 전라북도는 소외된 것이 현실이다.

종국적으로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자꾸 떨어지며 발전에 뒤처지고 이로 인해 전북대학교의 평판도 떨어지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고민해

야 하지 않을까? 이 같은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마한·백제·후백제의 중심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조선조 문화를 일으켜 세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구조적 모순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극복해나가자. 우선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정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자.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사회적 평판도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모교인 전북대학교가 발전할 것이다. 필자는 무조건 양보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고향과 모교의 발전을 추구하고, 우리의 실력과 품격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라북도여 일어나서! 전북대학교여 일어나서! 필자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전라북도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연간 관광객 1억 명 유치, 도민 소득 2배 향상, 300만 도민 시대를 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일에 전북대학교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옥마을을 조금 더 전통적으로 가꾸고 조선조 문화의 진수를 느끼게 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크게 견인할 수 있는 탄소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의 핵심 브레인 역할도 절실하다. 300만 도민시대는 새만금개발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대학교 동문은 국가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우리 모교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자. 후배들이 전북대학교를 나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전통을 세워나가도록 하자.





전북의 신성장동력 탄소산업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이루겠습니다!

Dream For You

환경을 생각하는 국제탄소연구소,
최고의 기술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orea Institute of Carbon Convergence Technology

전북대학교동창회 제35대
임원회비 납입 현황

- 2014. 10. 16일 기준(단위:만원)

구 분	2014년도	
회장(500)	김 영(500)	
고 문 (10)	이규하(50,평생고문화비, 2010년 납부) 고양곤(10) 강철선(10) 김인석(10) 백영기(10) 정병하(10)	
부회장(100)	홍진석(100) 김병남(100) 김영근(100) 김창수(100) 박동우(100) 박종덕(100) 양형식(100) 이동규(100) 이병렬(120) 이상재(100) 이용규(100) 이윤범(100) 전이현(100) 정성후(130) 최병무(100)	
단대회장(25)	최영란(간호대 25) 이흥래(사회대 25) 김정하(예술대 25) 임기영(자연대 25)	
대학원 회장(15)	김재수(경영 15) 나준균(환경 15)	
지역회장(15)	이용재(재경 15) 최성요(군산 15) 박용근(장수 15) 박찬욱(무주 15)	
상임이사(15)	간호대	김현옥(15) 김형경(15) 박명희(15) 김정희(15) 최점숙(15) 유성자(15)
	공 대	
	농생대	강진하(15)
	법 대	송양호(15) 김병기(15)
	사범대	
	사회대	이상진(15) 함우식(15) 주상현(15)
	상과대	조춘신(15)
	생활대	지향림(15)
	수의대	
	예술대	이화수(15) 김 연(15)
	의과대	인정환(15)
	인문대	
	자연대	서경식(15) 소준노(15) 유동진(15)
	치과대	김수야(15) 최동주(15) 김현철(15)
	한생대	
감 사	이대갑(15)	

전북대학교 20만 동문 여러분!
당신은 희망입니다.

1% 기부문화 비상의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기부문화! 20만 동문의 시작입니다.

기부문화를 공모합니다.

1. 재능 기부 : 정치·경제·문화·사회재능을 후배들을 위한 기부(특강 등)
2. 봉사 기부 : 총동창회 업무에 봉사하실 동문을 기다립니다.
3. 보험 기부 : 적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시
보험금을 총동창회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프로그램
1호 보험기부자 제34대 정병하 전 총동창회장 500만원(월 보험료 9,900원)
4. 기부문화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20만 동문 여러분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문 의 전 화 : 063-270-3641(총동창회 사무실)
전 송 : 063-270-3642(총동창회 팩스)
기부신청메일 : jalumni@jbnu.ac.kr(총동창회 메일)
장학금기부 : 장학재단계좌
전북은행 529-13-0312614 농협 301-0094-9415-11

20만 동문이 기부문화에 1%가 참여해 주신다면
전북대학교 총동창회는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에 세계 100대 대학을 향한 비상의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그
날개는 월 1만원 기부문화에 20%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20만 동문여러분!
기부문화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십시오.

총동창회장 김 영 올림

회비납부자

2014. 2. 18~2014. 10. 16 성명 가나다순

■ 평생회비납부자 (10만원)

- 고창석(농업경제 64/68) • 김상선(의학 74/81) • 김가득(대학원 사회복지학과09/12)
- 김기주(화학공학 66/70) • 김병숙(전기공학 76/80) • 김상설(법학 77/82)
- 김선희(의학 74/80) • 김성주(생물 78/82) • 김영숙(미술교육 82/86)
- 김영식(기계공학 75/79) • 김영진(국어국문 71/75) • 김우식(법학 59/63)
- 김이덕(이리농림) • 김현철(치의학 87/93) • 노환무(이리농림)
- 문영수(영어영문 77/84) • 박춘식(정밀기계 79/84) • 박현용(회계 86/90)
- 박형배(재료공학 90/95) • 배명철(의학 87/93) • 배춘규(사학 63/66)
- 서승교(의학 89/95) • 소용선(의학 86/92) • 송영동(화학공학 70/74)
- 송형철(기계공학 70/74) • 이경옥(법학 78/82) • 이명연(행정대학원 지방자치 08/10)
- 이신택(건축공학 70/74) • 이재덕(섬유공학 71/75) • 이형철(법학 75/79)
- 이희주(이리농림 임업71년졸) • 임영(외국어교육 76/82) • 장민(전기공학 86/90)
- 장종업(토목공학 71/78) • 전종필(사법 86/93) • 전증호(기계공학 57/62)
- 조상진(법학 75/79) • 채규룡(이리농림 임업68년 졸) • 최인방(수의학 63/67)
- 한창수(국어국문 56/62) • 허경석(농업경제 68/72) • 황기석(공법 89/97)
- 황지원(전자공학 78/85)

■ 연회비납부자 (2만원)

- 강택희(이리농림) • 강희만(경영 81/89) • 고윤석(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28기)
- 국병호(공법 94/98) • 권정주(경영 68/72) • 김광중(이리농림 55졸)
- 김근필(신소재공학 93/01) • 김동근(법학 84/88) • 김두정(의학 78/84)
- 김세권(사법 90/94) • 김순기(의학 78/84) • 김승수(농학 52/56)
- 김영해(법학 94/01) • 김인목(농예화학 53/57) • 김재병(이리농림)
- 김재엽(의학 91/97) • 김재욱(축산학과 80/85) • 김종표(법학과 86/91)
- 김태이(정치사회 96/03) • 박기성(화학 84/88) • 박삼서(사법 91/98)
- 박수영(공법 88/92) • 박종완(경영 85/92) • 백기근(경영 83/90)
- 백태호(채광야금 63졸) • 백흠길(섬유공학 63/70) • 서승교(의학 89/95)
- 서호석(경제 81/87) • 설재영(법학 95/00) • 송광석(상학 59/65)
- 신하룡(농학 57/61) • 양량해(법학 99/07) • 양승엽(영어영문 79/85)
- 오경승(법학 06/12) • 원찬희(측지환경 77/81) • 유성엽(최고경영자과정 21기)
- 유종민(법학 00/03) • 윤광선(기계공학 60/64) • 윤여운(법학 82/86)
- 이계철(정밀기계 80/84) • 이국행(화학 68/72)
- 이명연(행정대학원 지방자치 08/10) • 이석조(법학 53/57)
- 이슬아(생물환경 08/12) • 이옥선(컴퓨터공학 98/02) • 이정근(대학원 법학 03/10)
- 이준영(법학 79/83) • 임경진(경영대학원 00/02) • 임미영(국어교육 82/85)
- 전종필(사법 86/93) • 정영민(무역 94/02) • 정태영(토목공학 65/69)
- 차인권(법학 67/71) • 최동근(원예 79/83) • 최석식(법학 73/77)
- 하송아(교육 99/03) • 한현철(정치외교학 82/89) • 허강무(사법 93/97)
- 황지원(전자공학 78/85)

■ 장학기금 납부자

- 국민은행 전북대건지점 200만원 • 김상태(농학 51/55) 200만원
- 김우식(법학 59/63) 10만원 • 배정생(공법 86/93) 30만원
- 조병춘(의학 74/80) 100만원 • 최인방(수의학 63/67) 10만원

국민과의
행복한 나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KB 국민은행

금암동 지점장	홍 성 룡 (경영학과 졸)
평화동 지점장	김 종 철 (무역학과 졸)
김 제 지점장	이 용 술 (농 경 제 졸)
부 안 지점장	임 관 규 (경영학과 졸)
전북대건지 출장소장	안 성 민 (경제학과 졸)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친선 골프대회

2014. **11. 9** 11:30
일요일
동전주써미트CC

세부요강

- 참가자격 : 전북대학교 동문 및 특별초청자
- 초청인원 : 200명 (50팀)
- 경기방식 : 개인전, 단체전 (신페리오 방식, 동시 샷건)
- 경기일정 : 2014년 11월 9일(일) 11:30 티업 (동전주써미트CC 27홀)
- 참가회비 : 30,000원 납 (계좌입금: 전북은행 1021-01-1615932 예금주 김영 또는 경기당일 현장 수납)
- 비용 : 카트비 포함 그린피(9만원), 캐디피(팀당 12만원), 그늘집식비, 필드경비 등은 경기당일 참가자 개인 부담
※ 주최측에서 고급 만찬 및 기념품 제공
- 참가방법 : 신청자는 별도 신청서 팩스 (Fax. 063-270-3642)
※ 단체는 서면(Fax) 신청만 가능 / 문의 : Tel. 063-270-3641, E-mail. jalumni@jbnu.ac.kr
- 접수마감 : **2014년 11월 3일(월) 18:00까지 선착순 접수**
- 적용규칙 : 대회 골프장에서 정한 로컬룰 적용

시상내역

- 개인상 우승 및 준우승 : 트로피 & 상품
- 단체상 우승 및 준우승 : 트로피 & 상품
- 특별상(여성최저타상 / 롱기스트상 / 니어리스트상 / 다버디상 / 베스트드레서상 / 다보기상 / 다양파상 / 홀인원상) : 상품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주최 :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협찬 :

후원 : (주)성전건설 / 백제법무법인

문의 : 전북대 총동창회 사무국 Fax : 063)270-3642 Tel : 063)270-3641 E-mail : jalumni@jbnu.ac.kr